



유엔 주요 소식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2018년도 연례회의 개최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lobal Allianc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GANHRI)은 2월 21일-23일 스위스 제네바 소재 유엔 본부에서 2018년도 연례회의를 개최하였다. 3일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는 집행이사회, 지역 네트워크 회의, 총회, 연례 콘퍼런스, GANHRI 고령화 실무그룹 정기회의 등이 개최되었으며 다양한 부대행사도 진행되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성호 위원장이 참석하여, GANHRI 고령화 실무그룹 의장으로서 2018년도 상반기 고령화 실무그룹 정기회의를 주재하였으며, GANHRI 고령화 실무그룹의 전략계획 채택, 노인인권협약 성안을 위한 활동,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ASEM Global Ageing Center)등 지난 해 GANHRI 고령화 실무그룹의 주요 성과를 GANHRI 집행이사회와 총회에서 발표했다.

또한 GANHRI 고령화 실무그룹 의장국으로 재선출되어 2020년 6월까지로 임기가 연장됐다.

한편 23일 장애인 인권을 주제로 열린 연례 콘퍼런스는 장애인권리위원회와 공동으로 개최되었으며 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자립생활), 제31조(지표의 사용), 제33조(독립적 모니터링 기구)에 관해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였다.

유엔 주요 소식

유엔 인권이사회 제37차 회기 개최

유엔 인권이사회가 26일 제37차 정기회기를 개최하였다. 이날 열린 개회식에는 구테헤스(Guterres) 유엔 사무총장과 라이착(Lajcak) 제72차 유엔 총회 회장, 자이드 후세인(Zeid Hussein) 유엔 인권최고대표, 카시스(Cassis) 스위스 외교부장관 등이 참석하여 개회사를 전달하였다.

라이착 유엔 제72차 총회의장은 현재 사회가 인권이사회에 기준 정립 및 강화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는 인권이사회는 유엔 기구 전반에 걸쳐 범지구적 영향을 미친다며 인권이사회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슈츠(Suc) 인권이사회 의장은 고위급 세션에 참석한 98명의 고위인사와 제네바 대표부가 없는 12개 개도국 및 군소제도 국가의 참석을 환영하며, 향후 진행될 논의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본 회기는 3월 23일까지 진행되며, 북한인권 등 다양한 문제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보고와 UPR 절차 등이 진행된다.

국가인권기구 소식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대한민국 제8차 국가보고서 심의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22일 열린 제69차 회기에서 대한민국의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상황에 관한 제8차 국가보고서를 심의하였다. 대한민국 여성가족부 정현백 장관은 보고서를 발표하며 지난 7차 국가보고서 심의 이후 대한민국이 여성 권리 보장, 여성의 대표성, 여성에 대한 폭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성평등 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성별을 기반으로 하는 편견 및 유리천장 해소를 위한 노력을 배가 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수립된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과 공무원, 공기업, 대학, 군, 경찰의 성별 쿼터제 도입 등을 소개하였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달리아(Dalia) 의장은 대한민국의 여성차별철폐를 위한 지금까지의 노력을 치하하면서도 대한민국이 여성차별철폐협약의 가입 이후 38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차별 등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종합적 법률을 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위원회의 권고 이행을 더욱 강화할 것을 독려했다.

유엔 주요 소식

유엔 성희롱 신고를 위한 핫라인 구축

유엔이 성희롱 신고를 위한 24시간 핫라인을 구축하였다고 유엔의 구테헤스 사무총장이 발표하였다. 그에 따르면 동 핫라인은 유엔 사무국 직원이 익명으로 상담할 수 있으며, 상담직원에 의해 보호, 지원 및 신고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동 핫라인은 유엔 내의 성희롱 등을 해결하기 위한 5단계 계획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으며 기존의 신고 체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내부감사국의 조사과에서 핫라인을 통해 접수된 모든 성희롱 관련 민원을 조사하게 되며, 즉각적이고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민원 접수, 진행 및 해결을 담당하게 된다.

구테헤스 사무총장은 성희롱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재차 강조하며, 어떤 형태의 희롱이든 유엔이 기구로서 추구하는 가치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기준을 정립하는 기구로서 유엔은 모든 사람들이 존중받고 가치가 인정되는 포용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며, 균형적이고 안전한 근무 환경 확립을 통해 사람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행사달력

2018년 3월 UN 주요회의 일정

날짜	회의	비고
2/14-3/9	장애인권리위원회 제19차 회기	
2/26-3/23	인권이사회 제37차 회기	
2/19-3/9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제69차 회기	
3/12-29	사회권규약위원회 제63차 회기	
3/12-4/6	자유권규약위원회 제122차 회기	

국제 인권 동향

Human Rights Worldwide

국제 인권 동향은 위원회 직원들의 국제 인권 의식 고양과 역량 강화를 위해 월 1회 발행됩니다. 각 과에서도 관련 소식이 있으면 언제든지 알려주십시오. 제안 및 코멘트는 아래로 부탁드립니다.

담당자 황소영 2125-9884

정책교육국 국제인권과
sygraceh86@nhrc.go.kr